

한식(寒食) 이야기

강 욱
자유기고가

음력 3월은 일년 중 가장 따듯한 날씨 속에 온갖 초목들이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로, 나비와 새들이 날아들며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3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삼월은 모춘이라 청명(淸明), 곡우(穀雨) 절기로다
춘일이 재양(載陽)하여 만물이 화창하니
백화는 난만하고 새소리 각색이라
당전(堂前)의 쌍제비는 옛집을 찾아오고
화간의 범나비는紛紛히 날고 기니
미물(微物)도 득시(得時)하여 자락(自樂)함이 사랑롭다...

3월은 삼라만상이 생명의 부활을 한껏 펼치는 봄이 가장 무르익는 달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절기로서 한식, 청명, 곡우를 들고 있다. 한식(寒食)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며, 어느 해나 청명 안팎에 든다. 한식은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들기도 하는데,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늦다고 한다. 대개 양력 4월 5, 6일쯤으로 나무심기에 알맞은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나무를 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식날 비가 오면 ‘물한식’이라고 하여 그 해에 흉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다. 또 한식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 아니라 나라에도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꺼려했다. 한식의 유래에 대해 중국에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 온다. 중국 고사에 이 날은 비바람이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개자추전설(介子推傳說)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개자추(介子推)라는 진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문공(文公)을 모시고 있었다. 문공이 국란을 당하여 개자추 등 여러 신하를 데리고 국외로 탈출하여 방랑할 때, 배가 고파서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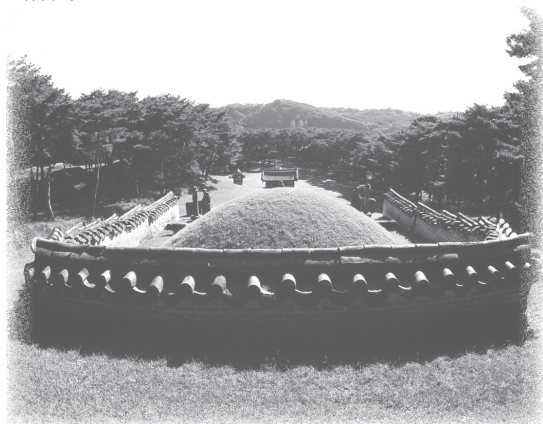
의 죽게 된 문공을 개자추가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 구워 먹여 살린 일이 있었다.

뒤에 왕위에 오른 문공이 개자추의 은덕을 생각하여 높은 벼슬을 시키려 하였으나, 개자추는 그를 마다하고 면산에 숨어(혹은 19년을 섬겼는데 俸祿을 주지 않으므로 숨었다고도 전한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므로, 개자추를 나오게 할 목적으로 면산에 불을 질렀다. 결국 개자추는 늙은 홀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타죽었다.



그 후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또 타죽은 사람에게 더운밥을 주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 하여 불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이 날은 버드나무를 대문에 꽂기도 하고, 개자추의 죽음을 아파하여 불을 쓰지 않고 찬밥을 먹으니 냉절(冷節)이라고 한 것이다.

한식은 조선시대에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사대명절(四大名節)에 속했다. 이 날 각 가정에서는 헤어졌던 온 가족이 모여 술과 과일, 나물, 떡, 어육 따위의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 날, 낮을 보에 싸 가지고 가서 산소 근처의 풀을 베고 잔디를 입히고 산소를 말끔히 다듬었다. 이렇게 풀을 베고 묘지를 다듬는 일을 개사초(改莎草)라고 한다.

그러나 한식이 음력 2월에 들면 사초를 하지만, 음력 3월에 들면 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한식 날이 되면 내병조(內兵曹)에서 버드나무를 뚫어 불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리고 그 불을 해에 붙여 각 관아와 모든 대신집에 나누어주는 풍속이 있었다. 이러한 풍속은 고대의 종교적 의



미로 매년 봄에 신화(新火)를 만들어 쓸 때에 구화(舊火)를 일체 금지하던 예속(禮俗)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있어서 한식은 조상을 위한 제례와 환절기 불조심을 위한 금화(禁火)의 의미가 강하다.



중국에서는 한식날이면 예로부터 투계(닭싸움), 타구(공치기), 그네뛰기 같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기곤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와 이조 초기에는 한식날 조정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봄놀이도 하여 이 날만은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차츰 이런 관습이 사라지고, 다만 성묘를 하는 날로서의 풍습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청명(淸明)은 24절기의 다섯째로서 음력 3월 절기이며, 양력 4월 5, 6일 경이 된다.

이 날은 한식의 하루 전날이거나 같은 날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속담이 생겼다. 농가에서는 청명 날부터 비로소 춘경이 시작되고 이 날부터 채마전에 씨를 뿌린다.

우리 조상들은 청명 15일 동안을 5일씩 3후로 세분하여 (1)오동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2)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3)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이 날은 ‘내 나무’라 하여 아



이를 낳으면 그 아이 시집 장가 갈 때 농 짝을 만들어줄 재목감으로 나무를 심었다 한다.

민간에서는 이 날을 전후하여 한식면(寒食麵)이라 하여 메밀국수를 해먹고, 쑥탕, 쑥떡 등을 먹기도 했다. 이 때쯤이면 산과 들에 어린 쑥이 많이 날 때이다. 이것을 캐다가 멥쌀가루에 섞어 버무려 찐 것이 쑥떡이다. 물론 한식사리(한식날 무렵 잡은 조기)도 즐겨 먹었다. 청명절이 든 때에 담근 술을 청명주(淸明酒) 또는 춘주(春酒)라고도 한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 지로써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 · 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36
Fax : 02)3274-2009
E-mail : enyouho@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3월호
(통권 제 39 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광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변성완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흔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3월 일

디자인·인쇄 금성문화사 (02-2263-4906~7)